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킹.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근	President	Chung Kua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37	Issue No.	1737
발행일	음력 구월 18일 금요일	Subscription	\$10.00 per year
		Date	April 4, 1969: Fri.

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매장식 거행

(캔사스주 아비린 4월2일밤, 에이피) 고아이젠하워전대통령의 위제는 오늘, 고향 아비린의 당에 모여 잡들었다. 위제는 으로부터의 긴 여행을 마치고, 장례열차는 오전 6시 57분 아비린에 도착하였다. 으로부터 아이젠하워로서 관까지 다시 위제를 마친 장례열이 45분간 계속되었다. 님슨대통령도 메피부인의 뒤에 따랐다. 인구 8천명의 조용한 시골촌인 아비린은 이날 아이젠하워전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유명, 무명의 미국인을 마지하여 10여만명으로 늘었다. 님슨대통령의 신변경제대문에 비밀경찰원이 붙어서, 장례열의 길가에따라서 상점가의 정문과 에페베이를 닫는등 소동이 있었다. 제34대미대통령의 영인의 당은, 아이젠하워로서 관으로부터 약 백야드 더러진 예배당의 마루밑에있는 남몰소, 그옆에는 어렸을때에 죽은 장남 님우즈군이 묻혀있다. 도서관과 길을 끼고 더러진 편에는, 민벽에 특색의 집웅의 아이젠하워의 생가가 있다. 예배당에서의 매장식에는 군인과 약간의 지기외에는 참열을 허락치않었는데, 목사의 기묘 소리는 뒤설기를 통해서, 막게서있는 군중에도 들렸다. 최후의 장례식을 마친 유족들은, "목사의 집" 이라고 명명된 작은 예배당으로부터 조용히 돌아갔다.

부락에서 습격사건

소련, 체코 관계 다시 험악화

(모스크바 4월1일밤, 에이피) 소련, 체코소모바키아관계가 다시 불온한 정세로되어졌다. 이것은 스독물름에서 거행된 소련, 체코소모바키아의 빙구시합에서 반대한것으로, 흥분한 부락시민의 반소시위로 변하고, 소련의 아에모모도, 인스리스의 사무소를 습격한것으로서 정점에 도달하였다. 소련공산당기권지 주마우다지는 31일, 체코소모바키아공산당지도자가 부락의 "위험한" 반소 시위를 저지하지안었다고 비난, "이들 지도자는 반동본자가 경기행사를 반사회주의우정에 이용하고있는것을 방임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동지는 체코소모바키아의 스폴코르스키 헌방의 죄 제1부의장을 죽이 말하여 공격하고, 28일 스독물름에서 열린 빙구세계선수권시합에서, 체코 팀이 소련 팀에 승리한것을 축하하는 시위에는 스폴코르스키부의장도 참가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 시위시에 군중은 소련 관공사주소동에 폭행을 가하였다고한다. 29일부터 체코소모바키아영내에서 율사외조약군의 연습도 시작하였는데, 시기에마침 반소기운이 이에해서 더 울물것도 예상되고, 양국관계는 또 경제의 시기를 마치하게 되었다. 공련에들어서 체코소모바키아에서 반소기운이 높아진것은 1월초의 헌방외이행에따라서, 스폴코르스키 전국민회의회의장의 처우를 사하고 일어난 총회장의 유입운동, 동월에 발생한 학생, 안.바라드르의 소년자살으로일어난 소련함의 시위등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제 1 편)



소련군의 거점도 습격

(부탁 4월1일발, 공동) 체코슬로바키아내부성은 31일, 빙구세제선수권대회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립이 소련. 립을 못질본것이 계기도, 체코슬로바키아국내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반소 습격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발도출하였는데, 이일련의 시위에서 소련군거점도 습격한것이 명백이 되었다. 성명의 호지는 다음과같다.

- 1. 부탁의 소련군영입공사부소 습격사건에서는, 중상자를 포함하여 정관 51명이 부상하였다. 경찰당국은 급우, 이러한종류의 행동에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 부탁복방 50기로, 무라다. 클래스라우의 소련주류군병사는 유리창 81개가 파괴되고, 소련대포가 4부상하였다. 북부 보헤미아의 우스지.나도.라베에서는 소련군사령부의 건물이 큰 피해를받고, 시위대는 소련의 차를 권복시키고, 불을 질렀다. 여기에서는 시위지도자를 체포하려고하였는데 시민의 방해로 노쳤다.

이스라엘 비난결의를 국련안보리가 채택

(뉴욕 4월2일발, 에이피) 국련안보리장리사회의에서는 1일 이스라엘의 윤단공격에대한 비난결의를 찬성 11표, 기권4표로 채택하였다. 기권은 미, 영, 그롬비아, 파루피이 이었다. 비난결의안술사고, 미, 영, 불, 소4대국의 태도는 돌로 노나졌는데, 이중 중동화평방식에대한 4대국회담의 개최에 영향을 끼칠것으로는 보이지안는다. 소식통은 회담은 3일, 국련, 불란서 대표부에서 개시하게 될것으로보인다.

오기나와문제에 기시 일본전수상 누순씨가 오담

(와싱톤 4월2일발, 공동) 방미중의 기시전수상 (육사)는 1일오후 안시간이상에 걸쳐 니순대통령과 백아관에서 회담하였다. 이회담은 기시육사가 개인의 자격으로한것인데, 석상 동류사는 오기나와문제에대해서 (1) 긴급한문제가기때문에 조기에 해결할 필요가있다. (2) 기시의 태세는 군사적권점만으로서가 아니고, 정치적인 점을 생각해서 결론을 내려야한다 의 두점을 강조하였다 이회담은 실질적으로서 미.일 수뇌회담으로 오기나와문제에대한 첫번의 접촉으로된 셈인데, 기시반언에대해서 니순대통령은 특이 의견을 말하지안었다. 기시육사의 인상에의하면, 니순대통령은 오기나와문제에 강한 관심을보였는데, 기시의 태세등 구체적문제에대해서는 미국측은 아직 태도가 결정되지안토있는모양으로, 기시육사는 이 백지의 상의 대통령에 기본적인 생각을 설명한점에서 의의가있다고보고있다.

비에트남 전쟁비용을 삭감

(와싱톤 4월2일발, 공동) 해아드미국방장관은 1일 하원에서 "미국은 국이 곤란하고 위험한 경제 재정상태에 직면하고있으며, 70회지년도의 국방예산은 또 6억 1천3백만불 삭감될것이다" 라고 인명하였다. 이번의 삭감은 주로, 비에트남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 탄약의 구입이 급우 감소 될것을 본것으로, 이결과 70회지년도의 국방예산은 11억 1천3백만불 삭감될것이다.

상항의 항만 파업인 법정결이 불복

(상항 4월1일발, 에이피) 서부항만에서 파업대중을하고있는 종업원의 파업에대해서, 어제 오후 연방지방법정판사로부터, 본제의 파업의 적아와 하역을 하도록 법정명령이 내렸는데, 가주 셋 항만의 관계종업원들은 아직 이 법정명령에 응하지안토있다.

체코 침입사건 이래. 최대위기에 직면 소련의 탄압에 국민반발

(부탁 4월3일발, 공동) 체코슬로바키아의 도부체지도부는 3월말의 반소 시위를 둘러싸고, 작년 8월의 소련, 동구군 "침입사건" 이래,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2일발표된 당중앙부성명은 "대소공제를 마피하는 모든 행위에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라고 말하고, 이회편에서 공산당기 권지 무대. 무라보를 위시하여 보도기 권을 비난, 당기 권지에대한 재도의 반간정치처분을 발표하였다. 동지는 2월말에 3개월만에 복간한 신문이다. 광부회성명은 또 스톨코르스키언방의 회제 1부의장의 이름을들고, 동부의장의 발언의 일부가 작년 11월의 중앙 위층 회회의에 반한다고 비판하였다고 말하고있다. 스톨코르스키는 도부체제 서기와같이 개혁 마의 상징적인물이기때문에, 감부회에서 스톨코르스키비판은 도부체지도부가 궁지에 더러져 있는것을 말하고있다. 체코슬로바키아정부는 또 동야, 사전검열제의 도입을 발표, 이에의해 편집수뇌의 일부정질도 예상되는 사태가되었다.

소련이 최후적 통고 태도

당과 정부가 이들 일련의 조치를 취한것은,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당지도부에대해서, 최후통고적 요구를 강요하였기때문이라고한다.

국민의 반발

사전검열제의 도입이 공장노동자, 신문인, 학생간에 강한 반발을 일으키게하는것은 확실하며, 정세는 예측을 어타하지안는다. 경우에따라서는 노동자나 학생들의 파업이 잇슬른지도 모른다.

소련의 무순

소련이 지난 31일에 세미요노프의무차관, 4월1일에 구레치코국방장관은 부탁에 보낸것은, 체코 슬로바키아 당감부에게 압력을 강하게하기 위한 조치라고보이는데, 소련으로서도 중공 제9회당 대회의 개최, 6월의 세계당회의외의 권점에서 체코슬로바키아 정세의 수습을사고, 큰 모순에 직면하고있는것은 사실이다. 소련이 2일의 감부성명 과 정부성명의발표로, 도부체지도부의 사태 수습에 만족을 표시할는지 또 안할지는 아직 모르며, 또 스톨코르스키부의장의 해입, 또는 그이상의 강한 조치를 요구할지는 소련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미국정부가 중요시

(와싱톤 4월3일발, 에이피) 미정부대변인에의하면, 미국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에잇서서의 소련: 새로운 압력조치를 주의깊게 지키고있다. 소련으로부터 체코에 파견된 대표는, 체코정부에대해 만일 급우 반소행동을 억제하지못할경우에는 소련은 전차대를 동원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한다.

중동화평 4대국 회담 개시

(뉴욕 4월3일발, 에이피) 중동화평에대한 4대국 회담의 제1회본회의는 3일, 미.영.소.불의 각국 국련대사가 출석하여, 회담제안국인 불란서의 국련대사관관에서 열렸다. 비에트남 화평 회담을 아듯이, 이회담도 한주일내에 한번씩 개최할 예정이다. 제1회에서는 회담의 수속, 방식을 토의 하는외에, 요스드 미대사, 마릭 소련대사가 회담회절에대한 미국, 소련안을 각각 제안할것으로 보인다. 외교측의 회담예측은 회담이 수개월간 계속 될것으로보고있다. 에지프드 (애랍연합)과 유단은 4대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하는 태도를 명백히하고있는데, 이스라엘은 회담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이익에 반하는 권고가 나오드라도 무시한다고 말하고있다.



